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6632

2008년 8월

음악교육학석사학위논문

음악교육이 교과학습과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이 수 의

음악교육이 교과학습과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Music Education on the Development of Aesthetic Sentiments and Academic Achievements

2008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이 수 의

음악교육이 교과학습과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서 영 화

이 논문을 음악교육학석사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8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이 수 의

이수의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8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2
1. 연구의 방법 ····· 2
2. 연구의 내용 ····· 2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 3
제2장 음악교육의 필요성 ····· 4
제1절 음악과 교육 ····· 4
제2절 음악과 교육과정의 이해 ····· 5
1. 학교 교육과정 ····· 5
2. 음악과 교육과정 ····· 6
3. 음악과 교육과정의 특성 ····· 8
4.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 ····· 11
제3절 음악과 정서발달 ····· 13
1. 정서의 본질 ····· 13
2. 정서발달에서의 유전과 환경 ····· 14
3. 청소년기의 정서 ····· 15
4. 음악교육의 심리학적 접근 ····· 22
제4절 설문조사의 문항 분석 연구 ····· 24
1. 대상과 조사 방법 ····· 24
2. 내용 ····· 24
제3장 교과학습과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 25
제1절 음악교육과 교과학습 ····· 25

1. 음악교육의 시기와 교과 학습의 영향 ····· 25
2. 음악 이론과 실기 ····· 26
3. 정규교육과 사교육 ····· 27
4. 음악교육과 교과 성취도 ····· 30
제2절 음악교육과 정서발달 ····· 33
1. 발달과정과 음악교육 ····· 33
2. 감정의 변화와 음악 ····· 35
3. 기악 연주와 정서 순화 ····· 35
4. 음악과 정서의 상관관계 ····· 36
제4장 결론 및 제언 ····· 39
참고문헌 ····· 41
부록 ····· 43

표 목 차

<표-1> 음악교육 시기와 학습 영향 ····· 25
<표-2> 이론과 실기 비중 ····· 26
<표-3>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시간 배당표 ····· 27
<표-4> 음악교육의 기회 ····· 27
<표-5> 사교육 기관의 음악교육 ····· 28
<표-6> 연도별 학원수·수강생 증감 추이 ····· 28
<표-7> 사교육 기관 수강 기간 ····· 29
<표-8> 사교육 기관에서 배운 악기 ····· 29
<표-9> 학교교육과 사교육의 교과학습 발달 영향 ····· 30
<표-10> 음악교육과 교과 성취도 관계 ····· 30
<표-11> 음악교육과 과목별 영향 ····· 31
<표-12> 교과 선호도 ····· 32
<표-13> 음악교육의 시기 ····· 33
<표-14> 음악교육의 시기와 성격 형성 ····· 34
<표-15> 음악과 감정변화 ····· 35
<표-16> 자신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 ····· 35
<표-17> 음악과 정서발달 ····· 36
<표-18> 정서발달에 도움을 준 음악 ····· 37
<표-19> 음악회 관람 경험 ····· 37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Music Education on the Development of Aesthetic Sentiments and Academic Achievements

Lee, Su-ui
Advisor : Prof. Seo, Young-hwa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Music is definitely a universal language available to anyone in which man is able to communicate. It sure is the best tool through which we express our emotions and understand each other. Music has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of human society developing variously depending on the changes of cultures, thoughts and values that underlie music of an era.

Despite the fact that man enjoys music by instinct, what kind of music a person get used to entirely depends on music education; in other words, nothing is better than music education when it comes to producing a whole person because it helps man express his emotions and thoughts and enhance his quality of life.

This thesis aims at finding how an important role music education plays in school where music education is pretty much ignored and recognizing music education makes great contributions not only to the development of aesthetic sentiments but also to academic achievement.

As people tend to overlook the fact that music education helps develop

students' creativity and build their desirable character, this thesis will show the great importance of music education put on development of intelligence and sentiments by carrying out research on a group of high school students.

The issues focused on in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realm of music education in school curriculums

Second, the effect of music education on academic performance

Third, the realm that is considered to have had more influences on academic achievement - school education or private education

Fourth, the subject most correlated with music education

Fifth, the influence of music education on character-building

Sixth, the influence of music education on the development of aesthetic sentiments in the course of a person's growing.

The subjects were made up of 532 students(upper 30% and the others 70%) from academic high schools in Gwangju.

The questionnaire consists of 17 questions with statistics made up on the basis of a percentage of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being surveyed.

The results gained from the analysi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the earlier music education is started, the more influences it have on the development of aesthetic sentiments.

Second, music education is relatively scarce in schools.

Third, students who have received music education continuously show relatively higher academic achievement.

Fourth, music has great influences on emotions.

Fifth, music education in adolescence helps students greatly to develop aesthetic sentiments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 that music education offered in childhood has a powerful influences on the students' academic results and development of

their aesthetic sentiments as well. So, it is desired that students be given as many chances as possible to take more active part in getting closer to music in their preferably earlier stage.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오늘날의 사회는 갈수록 빠른 속도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지식이 재산이고 권력인 사회에서 창의성의 교육 및 개발은 우리가 피하기 어려운 시대적 과제이다.[1]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적응하고 경쟁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인간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의학전문 뉴스통신 헬스데이뉴스는 매주 피아노나 노래 수업을 정기적으로 일정기간 받은 아이의 IQ가 수업을 받지 않은 아이보다 더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2]

음악은 일상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한 지 이미 오래다. 음악교육이 교과 학습의 바탕이 되는 창의력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인간을 형성할 것인가? 창의력이 교육에 의해 증진된다는 여러 사실들은 창의력 교육의 필요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또한 음악은 인간의 창조적인 능력의 소산인 예술 작품을 다룬다는 점에서 볼 때 특히 음악교육은 지능과 감성발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연구 발표들이 있은 후, 음악교육은 다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학부모들의 관심사이다. 그렇기에 교육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음악교육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음악교육을 볼 때 일반 유치원이나 유아원, 어린이 집 등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음악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기보다는 가창 위주 교육에 집중되어 있으며, 단순한 악기 교육이나 체계적이지 않은 리듬 교육에 한정되어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설 예체능 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음악교육은 어린이의 음악적 능력을 신중히 고려하지 못한 기능 위주의 악기 교육과 이론 중심의 획일화된 음악교육에 치중되어 있다.

---

1) 김영채, “창의성 교육의 평가 방안” 『교육평론』(서울: 주간교육신문사, 2005), P.26.
2) 데일리줌, 2004. 7. 15. 29면.

인간은 사회적 환경 요인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주의적 사고가 팽배해져 이기적 행동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배려하려는 능력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

그 결과 정서적 불안정, 부정적 성격 형성, 반사회적 행동 등이 나타남으로써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볼 때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고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지도한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은 주입식 위주의 도구교과 교육에만 치중한 나머지 음악을 비롯한 예능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 효과는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였다.

최근 도외시 되고 있는 음악교육이 학생들의 교과학습과 정서발달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를 확인하여 바람직한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에 의한 음악교육의 특성과 교육학적 이론 및 정서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 및 설문 조사를 토대로 분석· 조사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설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음악교육의 영역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음악교육이 교과학습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셋째, 학교교육과 사교육 중 교과학습 발달에 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영

역을 연구, 조사한다.

넷째, 음악교육이 어느 교과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가를 살펴본다.

다섯째, 음악교육이 성격 형성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다.

여섯째, 음악교육이 성장과정에서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연구의 범위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교육이 그동안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교과 학습과 정서 발달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연구의 대상이 광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532명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제 2 장 음악교육의 필요성

제 1 절 음악과 교육

우리는 흔히 '음악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유산 중의 하나'라는 말을 듣는다. 인류가 존재해 온 이래 음악은 존재해 왔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 할 것이다. 음악의 경험은 또한 세계적으로 공통된 경험이다.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음악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음악은 단지 어른들만의 소유가 아니다. 어른이나 어린이를 막론하고 음악은 우리 인간 모두의 소유인 것이다

음악은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교육이다. 지구상에 리듬과 율동을 창조하고 즐길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은 바로 인간이다. 음악은 살아가면서 평생의 친구가 되기도 한다. 마음속에 담긴 희로애락을 쏟아낼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으로 음악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다.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음악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음악은 개인을 떠나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음악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참으로 풍요롭게 만든다.

음악교육은 국민들의 정서를 함양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어린 시절의 음악교육은 어린이들의 지능과 분별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창조력과 협응력 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학습도구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사회 전체에 널리 파급된 음악교육은 한 국가 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하게 된다.

음악교육은 학생의 음악적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음악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애호하며 즐기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업에서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통해 음악의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음악활동으로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학생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생 자신이 자발적으로 음악과 학습에 임하게 하는 동기 부여의 여부에 따라 학습의 성패가 좌우되는 특성을 지닌 교과목이므로 실생활과 연계된 교과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음악 경험을 통해 자신이 지닌 음악적 잠재력을 발견하게 하고, 그 발견된 잠재력을 바탕으로 모둠별 구성을 통해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의 다양한 '음악작품 창작 발표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학생의 창의성을 신장시켜주는 과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 2 절 음악과 교육과정의 이해

1. 학교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근거로 지역·학교·학생의 실정에 알맞게 각 학교에서 마련한 구체적인 교육실천계획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시·도와 학교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역할을 분담하는 커다란 정책 변화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을 문서로 결정·고시하고, 교육청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과 실천중심의 장학자료를 만들어 제시한다.

학교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지역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지역·학교·학생의 실정에 알맞게 '학교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편성·운영해야 한다. 이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가 다양하게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학교교육과정을 '어떤 체제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각 학교에 자율·재량권이 부여돼 있다. 따라서 학교장의 교육적인 판단과 신념, 그리고

전 교직원의 공동사고와 참여 속에 창의성을 발휘해 특색 있게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주체는 바로 교사이다. 아무리 국가기준을 잘 만들고 지역지침을 세밀히 마련해 줘도 교육실천자인 교사가 교육목표를 명확히 의식하지 못하거나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면, 학교교육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교사가 교육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선택해 실천·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3)]

2.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과 교육과정이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하는 우리나라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학교 음악교육에서 달성되어야 할 음악교육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음악교육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과 교수- 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본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음악과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음악교육의 모습을 총체적인 입장에서 나타내고 있는 교육의 설계도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까지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왔다.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의 첫 번째 단계는 음악과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내용선정,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의 준거가 결정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계획의 매우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된다. 음악과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교육목표의 설정, 설정된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하위 목표 간의 일관성, 교육목표의 초, 중, 고등학교의 급별 간의 일관성과 계열성 등을 고려하여 음악과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설정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우리가 학교 음악교육을 통해 어떤 인간을 길러 내려고 하는 지에 대한 철학적 목

3)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개정 교육과정'개요』(서울: 세원문화사, 2007), P.23.

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왜'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음악교육의 철학적 고찰을 통하여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음악과 교육과정 목표를 설정한다.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의 두 번째 단계는 학습자들이 학습해야할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목표가 설정되면, 그 목표가 교육과정 내용으로 전환되어야한다. 즉 교육과정 내용은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활동으로 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내용은 원래 의도했던 목표를 제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음악과의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세 번째 단계는 어떠한 음악적 내용을 선정하여,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이다. 즉, 음악교과로서의 요구, 사회적. 시대적 요구와 실정, 학생의 개인적 요구 등에 부응하기 위한 내용을 선정하는 일은 교육과정 개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선정된 교육과정 내용 및 경험은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하며, 이 교육내용을 적정화하여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음악과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의하여 '언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의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정하고, 실제로 지도하게 되는 것이다. 음악과 교수-학습방법은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데, 음악과 목표, 음악과 내용 선정과 조직은 이 단계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음악과 평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음악수업에서 학생의 음악적 성취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평가 방법, 평가기준, 평가도구를 제시하게 된다.[4)]

음악과 교육과정의 핵심은 '학생 중심'의 학습전개이다. 이는 지금까지 음악과 교수-학습이 타 교과에 비하여 교사 주도적인 학습 방법으로 진행되어 학생의 활동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수동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학생의 활동 중심의 학습을 전개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다양한 교수-학습 매체의 활용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

4) 권덕원·석문주·최은식·함희주,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서울: 교육과학사, 2006), p.61.

3. 음악과 교육과정의 특성

음악과 교육과정은 교육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하여 음악과에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포괄적이며 연계성 있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하였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인 10개 학년을 하나로 묶어 일관성 있고, 포괄적이고, 연계성을 가지도록 구성하였으며, 초등학교 1, 2학년 즐거운 생활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둘째, 우리 음악 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악 교육을 강조하였다.

21세기의 정보화·세계화·다양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음악 문화를 창조하고 이끌어 가기 위해 국악 교육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대, 양식, 문화권의 음악을 접하여 우리의 음악 문화유산과 다른 나라의 음악 문화유산을 비교하여 각 음악 문화의 음악적 특질과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음악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음악 문화 창달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셋째, 활동 중심의 음악 교육이 되도록 하였다.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이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음악 자체를 위주로 하는 활동 중심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을 듣고, 노래 부르고, 악기로 연주하며, 음악을 만드는 등의 '음악하기'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음악 개념이나 기능은 이러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습득되도록 하였다.

넷째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음악교육이 되도록 하였다.

음악과의 교수-학습 접근은 통합적이고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주어진 문제를 실천적이고, 창의적이고, 일관성 있게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음악적 창의성은 창조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며 학생 스스로 음악을 해석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연주하고,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분석하여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타당성 있는 음악과 평가가 되도록 하였다.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는 수행평가를 통한 음악과 평가를 강조하였다. 수업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음악과의 경우, 학생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전체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행평가가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점 사항들을 고려하여 내용 체계는 크게 이해와 활동 영역으로 나누고, 활동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으로 구성하였다. 음악과의 내용을 선정·조직하는데 있어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① 음악 학습에서 꼭 가르쳐야 할 최소한의 핵심적인 내용과 활동을 선정하였다. 이는 교육 과정 운영에 있어서 교사의 재량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교사의 음악 교육관과 학생의 음악적 능력, 수준, 지역 사회나 학교의 요구 등에 따라 교육 과정 내용 체계의 재구성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② 창의성과 음악성을 기르기 위한 내용을 선정하였다. 음악적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 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정하였다.

③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생활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음악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생활과의 관련 속에서 학생의 흥미, 관심, 요구를 반영하여 음악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 속에서의 음악의 사용, 역할, 가치에 대한 이해,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접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음악을 폭넓게 다루었다.

④ 내용은 학생들이 학습을 통하여 성취해야 할 능력을 중심으로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게 제시하였다. 각 학년의 내용은 학생들이 이해해야 할 내용과 이를 수행하는 행동으로 서술하였다.

⑤ 음악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와 활동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적 이해를 꾀함으로써 두 영역이 통합적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조직하였다.

⑥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인 10개 학년을 하나로 연계성을 가지고 구성하였으며, 초등학교 1, 2학년의 '즐거운 생활'과도 연관성을 고려하여 계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⑦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의 교육 편제는 학생의 발달 수준에 따라 대략 2년을 묶음으로 교과 편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여 초등학교 3, 4학년, 5, 6학년을 묶어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년별 내용은 학년 단위로 나누어 상세화하여 제시하였다.[5)]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정의 중점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인 10개 학년을 하나로 묶어서 일관성 있고, 포괄적이며 연계성을 갖도록 구성하여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음악적 내용을 바탕으로 더 새롭고 심화된 내용을 배우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음악활동에 적용해 보는 기회를 더욱 강화한 '포괄적이고 연계성 있는 음악과 교육과정'을 그 중점 사항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 중점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적절한 학습 환경과 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21세기의 정보화·세계화·다양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음악 문화를 창조하고 이끌어 가기 위해 '국악 교육'을 중요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전통 음악을 자주 접해 볼 기회를 가지게 하며, 이론 수업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악곡을 노래하고 연주하고 만들고 듣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음악 자체를 위주로 하는 활동 중심'의 음악 수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넷째, 가창과 기악 활동뿐만 아니라 감상과 창작 활동을 통하여 '문제해결력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음악 교육활동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컴퓨터, 전자 악기, CD, Video, CD-ROM, MIDI 등으로 음악을 창작하고, 연주하고, 듣는 활동을 하는 공학적 재료가 하나의 중요한 학습 매체로 활용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가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음악과 평가는 음악이 가지는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 도구와 방법의 활용이 어려우므로 수행평가를 통한 '타당성' 있는 평가 체제가 도입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5)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평가기준』(서울: 세원문화사, 2001), p.499.

4.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

음악과 교육은 학생의 음악적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음악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여 음악을 애호하며 즐기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이에 따라 음악과 목표는 10년간의 국민 공통 교육기간을 통하여 다양한 악곡과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개념의 이해와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바탕으로 풍부한 음악적 감수성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길러 음악을 생활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악곡과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음악적 정서를 풍부하게 한다.

1)음악의 구성요소를 이해한다.

2)가창, 기악, 창작, 감상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른다.

3)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여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른다.[6)]

음악과는 1)음악성 계발, 2)창의성 계발, 3)음악적 정서의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음악성과 창의성 계발은 다양한 악곡과 가창, 기악, 창작, 감상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특히, '다양한 악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음악적 개념의 이해와 음악성, 창의성 계발은 다양한 음악활동뿐만 아니라 적절한 악곡 지도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음악적 능력을 기름으로써 음악적 정서가 함양되게 된다.

세 개의 하위목표 중 첫 번째 목표는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 즉, 음악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게 한다는 것이다. 기본개념은 리듬, 가락, 화성, 형식, 빠르기, 셈여림, 음색이며 이 기본개념들을 학생들이 익히고 학습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기본이 되는 개념이면서 동시에 음악을 형성하는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3학년에게 기본적인 내용이 되면서

6) 장호, 『중등학교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서울: 예솔, 2005), p.248.

동시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학습 요소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음악성과 창의성 계발에 관련되는 것이다. 음악성과 창의성은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하여 계발된다. 따라서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한 음악 경험은 음악 수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의 음악을 듣고, 악기나 목소리를 통하여 음악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고, 음악에 반응하며, 음악적 내용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등의 수업과정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주어진 문제를 실천적이고, 창의적이고, 일관성 있게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세 번째는 음악학습의 정의적 영역의 목표에 관한 것으로서 음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고 나아가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흥미, 관심,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와 학교 밖에서 경험하는 실제 세계와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악의 가치와 역할을 이해하여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고 제7차 음악과 교육목표에서 밝히고 있듯이 '음악적 정서의 함양'을 위해서는 학생의 흥미·관심·요구를 반영하여 학교와 학교 밖에서 경험하는 실제 세계와 연계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음악교과서 속의 음악을 현실 생활 속에서 즐기고 향유하고 있는 음악과는 다른 종류처럼 인식하여 학습에 흥미가 결여되고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형태를 고안할 때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교과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필연적인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의 음악과 내용 체계는 크게 이해와 활동 영역으로 나누고 활동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생활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음악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생활과의 관련 속에서 학생의 흥미, 관심, 요구를 반영하여 음악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의 음악의 사용, 역할, 가치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접하기 위하여 음악을 폭넓게 선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 진행 시, 실생활과 연계된 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7)]

교과서 이론 중심의 수업으로는 학생의 잠재된 음악적 능력을 발현시키지 못하는 현실에서 교과서 음악과 그들이 즐겨하는 음악이 이분화된 현실 속에서는 자연히 교과음악에 대한 터부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음악교과 수업이 실생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생활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도입하여 수업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그 동안 잠재된 학생의 음악적 재능이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서양음악과 국악 교육을 6대 4의 비율로 가르치도록 음악 교과서가 편성되어 있어 다행스럽긴 하나, 교육의 주체인 음악 교사들이 서양음악을 전공한 교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악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부족으로 현장 교육에 있어 국악을 가르치는 데 어려움이 많아 국악 교육의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인식하여 음악 교사들의 국악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 3 절 음악과 정서발달

1. 정서의 본질

정서란 희로애락의 급격한 감정의 흥분상태, 즉 어떠한 외적인 자극이나 개체의 내적인 조건에 의하여 일어난 변화를 계기로 동요되고 흥분될 때에 경험하는 심리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정서를 자주 경험하게 된다. 정서는

7) "권덕원·석문주·최은식·함희주, *op. cit.*, pp.71-72."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훈련이 없이도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나 그러한 정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자신이 느끼는 행복이나 슬픔, 좌절감, 분노가 무엇을 의미하며, 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막상 정서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명확한 답변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정서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의 역사가 그다지 길지 않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성과 정서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주종관계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정서를 이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해온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다. 또한 정서는 다차원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차원은 상이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정서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더구나 정서라는 개념은 그 원인이 과학적 용어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용어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개념화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서의 본질을 명확하게 개념화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정서라고 믿고 있는 바를 보다 분명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보다 심층적으로 정서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서를 개념화하고 나아가 정서에 대한 역사적 관점, 정서의 속성, 정서의 구조 및 정서의 기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정서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정서발달에서의 유전과 환경

개인의 정서반응은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인지 혹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인지의 문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극단적인 유전적, 생물학적 결정론에서부터 사회문화적 결정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며, 전자의 대표적인 관점은 진화론적 관점이며, 후자의 대표적인 관점은 사회구성주의

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정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문화는 사회과정을 통해 부모세대로부터 자녀세대로 어떤 정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표현하고 조절해야 하는지를 전수하게 되며, 이에 따라 개인의 정서반응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한다.[8)]

3. 청소년기의 정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가장 많이 나타내는 정서는 슬픔, 기쁨, 공포, 불안이다. 이와 같이 우리 청소년들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서교육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된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슬픔의 유발 원인이 '부모에게 야단맞는 것'이라는 점이다.

발달심리학적으로 보아서 청소년기는 사춘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급속한 신체적 변화에 따라 정서, 자아, 대인관계, 이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갖게 되는 시기이다. 청년기 초기인 이 사춘기(puberty)는 라틴어 pubertas에서 유래된 것으로 성년을 뜻한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되는 시기인데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발달상 수행하고 성취해야 할 과업을 갖는다. 즉, 자신의 신체 변화를 수용하고, 동년배와 새롭고 성숙한 대인관계를 맺으며, 남성·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성취하고, 부모와 다른 성인들로부터 정서적 독립심을 갖는다. 또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직업선택을 준비하고, 정서적으로 성숙되어야 하고, 책임감을 가지며, 자아정체감과 생활철학을 확립한다. 흔히 청소년기는 분노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질풍노도의 시기'(Period of storm and stress)라고 지칭하는 데서 시사하듯, 이는 정서가 가장 빈번하고 강하게 나타나는, 곧 정서적 표출이 가장 특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정서를 유발시키는 원인은 많으며 그를 표현하는 방식도 더욱 다양해지고 풍부해 진다. 무엇보다도 청

8) 정옥분·정순화·임정하, 『정서발달과 정서지능』(서울: 학지사, 2007), pp.28-29

소년은 정서적으로 흥분되는 경우가 많다. 급속한 신체적, 생리적 변화가 신체의 균형 상태를 깨뜨리는데 이 과정에서 철분 결핍에서 빈혈이 생기게 되고, 이는 무감동, 불안, 불안정을 야기 시킨다. 또 급성장에서 오는 영양 불균형도 정서장애의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뚱뚱한 것보다 마르고 날씬한 것을 이상으로 여기는 문화와 미적 가치 등으로 인한 영양 섭취의 불균형, 시험 준비로 인한 수면부족에서 오는 피로감은 청소년을 우울하게 만들어서 정서적 폭발을 통제할 수 없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생리적 원인이외에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심리 사회적 요인들 또한 정서를 앙양시킨다. 예컨대 아동 때와는 달리 청소년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는 일, 성숙된 행동을 원하는 사회적 기대, 비현실적 야망, 이성에 대한 적응, 학교문제, 직업문제 그리고 가족관계의 갈등과 마찰 등이 원인이 된다.

청소년기의 발달은 청소년 전기(12세～14세), 중기(15세～17세), 후기(18세～24세)의 3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청소년 초기의 정서적인 발달은 성적인 증후와 그 충동에 의하여 정서는 성적인 색채를 띄우게 된다. 급격한 신체적 성숙과 더불어 성적인 의식에 의하여 수치심이 강해지고 이성에 대하여 주의가 끌리면서도 반발하게 되고 또한 외부에 대하여 허세적인 반항이 커진다.

청소년의 중기에는 노여움이나 격한 정서적인 동요와 같은 감정의 표출을 억제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내면의 감정해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열등감이나 자기혐오로 인하여 침울하거나 정서적인 불안이 심해질 수 있다.

청소년의 후기에는 질풍노도와 같은 정서를 사회적으로 적응시켜 안정성을 나타낸다. 이성에 대한 사모와 연애의 체험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만들고 현실을 직시하여 사회의 가치관에 맞게 행동하려 한다. 자신의 주관과 객관의 통합 속에서 자아의식의 안정기를 찾아 다시 태어나는 제2의 탄생기라 한다.

청소년들의 정서 발달을 보면 청소년 정서적 특징은 빠른 생리적, 심리적 변화에 따른 자신감의 상실과 심각한 정서의 불안 상태라고 하겠다. 청소년 초기에는 정서의 변화가 외계의 자극 현상에 대해 과민반응을 나타내고 후기에 들어서면서 격심한 정서의 표현보다는 자아의식의 교양과 함께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경향을 보이면서 정서적인 성숙의 기회를 맞는다. 또한 이 시기에 가장 두드러진 심리적 특징

은 자아정체감의 확립과 독립의 요구에 따른 심리적인 이유(離乳)현상이라 할 수 있다.[9)]

가. 정서 유발의 원인

흥미는 성취동기를 유발하여 성공감을 갖게 하고,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케 하는 긍정적 요소이다. 흥미를 끄는 원인은 신기한 것, 유사한 것, 성취 욕구를 자극하는 것 등이다.

기쁨은 감각적 쾌락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욕구충족, 만족스런 대인관계 및 인정을 받는 것이 기쁨 정서 유발의 원인이다.

놀람은 자극이 강할 때 활성화되므로 기쁨이나 슬픔 같은 의미의 정서는 아니다. 놀람의 원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감각적, 신체적 자극이다.

슬픔은 편의상 부정적 정서의 하나로 고려되기도 하지만 삶의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서로 간주된다. 슬픔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목표성취 좌절이 가장 빈번한 원인으로, 그 다음 불행한 사건의 인지, 이별의 순으로 나타난다. '목표성취좌절'이라는 슬픔의 원인은 '욕구충족'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되어있는 기쁨의 원인과는 상반된다. 따라서 슬픔과 기쁨은 반대되는 정서라 볼 수 있다.

우울은 가장 보편적인 심리적, 병리적 정서로 간주된다. 욕구좌절, 외적상황이나 대인 관계의 갈등이 우울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심리적 문제로 발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본다.

분노는 세계 여러 나라의 성인들 가운데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정서로서 원인은 욕구 좌절과 불쾌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는 '대인관계에서의 배신감'이 가장 빈번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혐오는 심리학적 오염대상에 대한 거부이며 혐오의 기원은 음식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에는 혐오의 원인을 부도덕한 사람(심리적 오염대상), 징그럽고 싫은 음식, 또는 나쁜 냄새나는 물건으로 들고 있다.

---

9) 김옥, "음악이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아주대교육대학원, 1998), pp.4-5.

공포, 불안의 원인은 예기되는 불확실성, 고립감, 갑작스런 변화, 곧 낯설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줍음을 경험하는 것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에 대해 확신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 청소년들은 새로운 상황이나 대중 앞에 서는 것, 치부가 노출되는 것을 수줍음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여자 청소년들은 칭찬이나 과대평가를 받는데서 수줍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수치심은 분노와 공포와 같은 정서에 비해서 연구가 거의 수행되어 있지 않다. 수치심이 개인적,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경험적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윈(Dawin, 1872)은 수치심, 수줍음, 죄의식을 동의어로 사용한 적도 있다. 필자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무능력'이 수치심의 유일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죄책감은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서 정서-인지행동 양식의 발달에 가장 핵심적인 정서이며, 책임감의 기초가 되는 정서이다. 한국 청소년들은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과 사회적 규범 위배를 죄책감의 유발원인으로 보고 있다.

사랑이란 감정은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로 연구되어 오지 못했다. 사랑은 사고와 생물학적 욕구와도 관련되어 있는 고도의 복합체로써, 많은 학자들이 신비롭다고 말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연구결과에서도 사랑의 원인은 모성애, 우정, 이성의 매력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편 타당성에 의한 상동형(고정관념)이라 볼 수 있으며, 문화 특수적(cultural-specific)인 것으로 생각된다. 정서 유발 원인에서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인 것은 기쁨, 슬픔, 우울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게 반응을 보인 정서는 수치심이다. 청소년을 포함한 청년들은 비교적 긍정적 정서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비해서, 아동의 경우에 가장 많은 정서는 슬픔, 기쁨, 공포·불안이고, 가장 적게 반응을 보인 정서는 놀람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한국 초등학교 아동들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려되며, 정서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슬픔의 유발 원인이 '부모에게 야단 맞는 것'이라는 점이다. 정서 유발원인에서 성별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학생은 놀람, 분노, 혐오, 공포·불안, 수줍음, 수치심, 죄책감, 사랑의 정서에서 외적 사건이나 상황

에 지향되어 있는데 비해서, 여학생은 놀람, 공포·불안(고립감), 수줍음, 사랑에서 자아관여의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남학생의 정서유발 원인을 '사건·지향적', 여학생의 경우는 '자아·지향적'이라는 용어라 한다.

나. 정서의 표현방식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은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회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아동양육방식, 사회적 규범의 차이 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이 정서유형에 따라 빈번하게 나타내는 표현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흥미가 유발되면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 기쁠 때 웃는 것은 다른 문화권과 일치되지만, 기쁠 때 표현을 하지 않거나 또는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비율이 적은 것은 다른 문화권과 다르다. 놀랐을 때 신체적 언어적 표현이 많은 것은 보편적인 것이나, 표현하지 않고 억제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다른 점이다. 정서가 유발되었을 때 표현을 하지 않고 억제하는 정서로서 앞서 언급된 기쁨, 놀람 이외에 슬픔, 분노, 혐오, 공포-불안, 수치심, 사랑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학생들은 정서를 표출하기보다는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정서들을 억압하는 것은 자칫 정신 병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보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슬픔, 우울, 분노, 혐오, 수줍음, 수치심 및 죄책감이 유발되었을 때, 나름대로 해결하는 비율이 높았다. 나름대로 해결이란 억제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특징으로, 이를 정서의 '자기-조절'(self-regulation)능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동 후기에서 완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유의해야할 것으로 정서가 유발되었을 때,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비율이 적다는 것이다. 나누면 '기쁨은 두 배', '슬픔은 반'이라는 통념과 상식은 허구일 뿐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슬플 때 울고, 우울할 때 행동이 위축되는 것, 화났을 때 언어적,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것, 불안할 때 안절부절 하는 것, 수줍거나 부끄러울 때, 죄책감을 느낄 때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이는 것, 그리고 사랑을 느낄 때 접근, 보호, 양육적 행동을 보이는 것은 다른 문화권과 일치된다.

흥미 : 적극적 탐색, 무관심

기쁨 : 웃음, 표현하지 않음, 대화

놀람 : 신체적, 언어적 표현, 표현하지 않음

슬픔 : 일기를 쓰는 것, 음악을 듣는 것, 노래를 부르는 것,

술-담배를 하는 것 등 나름대로 해결, 표현하지 않음

우울 : 나름대로 해결(슬픔의 경우와 비슷), 행위위축

분노 : 나름대로 해결, 언어적 공격, 표현하지 않음

혐오 : 나름대로 표현, 표현하지 않음

공포 - 불안 : 나름대로 표현, 안절부절 함, 표현하지 않음

수줍음 : 신체, 생리적 반응(얼굴이 붉어지거나 고개를 숙임),

나름대로 해결

수치심 : 나름대로 해결, 표현하지 않음

죄책감 : 나름대로 해결, 언어적 표현, 물리적 보상

사랑 : 표현하지 않음, 언어적·신체적 표현

다. 정서적 성숙

정서적으로 잘 적응하면 일상생활이 이완되어 편안해져서 열심히 활동하려는 동기가 생긴다. 반면에 정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긴장이 계속되면 신체균형 상태를 혼란시켜서 소화불량, 식욕부진, 두통을 야기한다. 정서적 긴장상태가 계속되면 체중감소, 불안정성, 일관성 없는 수행, 운동 기술의 실수, 언어장애, 주의집중 결핍 및 사고를 초래한다. 일찍이 프로이드가 정신병을 정서의 병이라고 갈파했듯이, 정서적 문제는 성격 부적응을 가져와서 회피행동 또는 공격적 행동, 비협조적 태도로 표출된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성숙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청소년기에 특히 필요하다. 정서적 성숙은 정서표출을 통제할 수 있고, 스트레스나 긴장을 견뎌낼 수 있으며, 정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신체적으로도 피로하지 않도록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헐록(Hurlock, 1973)은 정서적 성숙의 준거를 네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건강의 보존이다. 정서를 무조건 억제하거나 억지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여 수면부족, 피로감, 두통, 소화불량 등 자기건강에 해가 되면 안되며, 이를 통제하는 능력이다.

둘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사회적 규제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셋째, 정서를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화났을 때 이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과장된 욕이나 몸짓을 하지 않는 것이다.

넷째, 사실에 대한 통찰과 분석, 비판하여 적합하고 바람직한 방향의 정서를 가지는 능력이다. 이러한 준거들은 정서기능이라는 개념으로 재정립되었다. 정서적으로 성숙된 사람은 정서지능(Salovey & Mayer, 1990)이 발달되어 있어 자신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표현하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즉,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정확하게 지각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서를 조절하는, 통합되고 세련된 방법을 아는 사람이다. '질풍노도'란 특징으로 대표되는 청소년의 특징과, 자기정서를 억제하고 표현하지 않으며 문제가 있을 때 대화할 대상이 없는 한국 청소년들에게 슬로베이와 메이어의 정서지능의 특징을 들어서 해결책으로 추천하고자 한다.

자신의 정서 인식 자신의 정서상태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자신의 정서를 다룰 수 있으며 억제할 수 있게 된다.

정서를 조절-통제 불안, 분노 또는 슬픔과 같은 정서는 생존 메카니즘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러한 정서들 자체를 완전하고 간단하게 중단시키거나, 저지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일차적인 정서 상태에서 표출되기 쉬운 직설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을 유머나 방어법과 같은 후천적으로 습득된 교양 있는 행동양식을 통해서 보충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잠재능력 개발 '10%의 영감과 90%의 노력'이란 말이 있듯이 진정한 성공과 성숙은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 낙관적 사고방식, 자신감, 그리고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므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타인과의 감정이입 (공감, empathy)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상

대에게 집중하여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려는 자세, 그리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생각과 정서까지도 파악하려는 노력이다.

사회적 관계 형성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와 만남에서는 사회적 능력이 요구된다. 이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으로서, 이는 무엇보다도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를 잘 인지하려는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러한 능력의 함양과 교육은 구체적으로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대중매체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음악교육의 심리학적 접근

인간의 성격은 사고, 감정, 행동을 결정하는 개인의 주위환경에 의해서 다양한 변인적 요소를 가진다. 이러한 인간의 행동변화에 대한 요인을 심리적 원인으로 보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심리학적 방법은 다양하다. 20세기 이후 지금까지 인간 행동발달 연구에 관한 심리학적 접근은 개인의 특질 이론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인간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접근은 개인의 특성을 분석하는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적용하는데, 지금까지의 적용한 방법들을 살펴보면 첫째 프로이드에 의해 창시된 정신분석학, 둘째 행동주의 이론에 의한 성격과 학습경험과의 관련적 해석, 셋째 특질이론, 넷째 현상학적 접근에 의한 개인의 지각과 잠재력이다.(C. B. Wortman, 이종숙. 변은희 역 1987)

음악교육의 심리학적 접근은 음악학습에서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으로 분류하는 각 영역별 학습유형에 맞는 지도 유형을 적용하기 위해 적합한 심리학적 학습이론을 사용하는 것이다. 현대 음악교육 심리학에서 다루어야하는 이론들은 성숙, 동기 등과 같은 일반 심리학적 이론들과 행동 및 인지발달 이론, 인간주의 심리학적 이론 등이다.

심리학적 접근에 의한 음악학습유형은 미국의 교육심리학자 블룸(Benjamin Bloom)에 의한 학습의 영역별 분류인 인지적 학습, 심프슨(Elizabeth Simpson)이 구축한 심동적 학습 그리고 정의적 학습으로 구분하며, 아동의 행동 및 인지 발달 단계에 의해서 구성한다, 즉, 인간 활동으로서 정신적, 신체적, 감정적 영역들은 학

습기술과 연계되어 학습유형을 구축하게 되었다. 오늘날 음악교육의 심리학적 기초를 이루게 한 이론의 견해들은 왓슨, 숀다이크, 스펜스, 스키너 등에 의한 행동주의 이론, 부르너에 의한 인지주의 이론, 피아제의 복합적 인지론 등을 근거로 구축되었다[10]

음악이 심리적인 면에서 어떻게 사람의 정서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음악에서의 정서와 환기의 이론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가. 마이어(Meyer)의 음악에서의 감정과 의미 이론

마이어는 음악 지각에서 의미와 감정이 자극 그 자체 속에 있는 패턴들의 지각을 통해 일어난다고 한다. 감상자가 음악적 패턴들을 따를 때 기대조직이 발달된다는 가정에서 음악의 지연과 해결과정의 조심스럽고도 정교한 기대의 방해는 감상자에게 정서적 경험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자극물에 대한 의식적 집중과 음악적 스타일에 대한 익숙함이 마이어의 이론 가설의 전제가 된다. 그는 음악에서의 감정적 경험이 일상 삶에서의 감정적 경험과 다음의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름이 없다고 하였는데, 첫 번째는 음악적 긴장과 해결 패턴에 인도되는 감정 반응은 대개 만족스럽고 기분좋게 하는 것이며, 둘째 음악적 긴장과 해결 패턴은 같은 자극적 모델 내에서 제시되어진다는 것이다.

나. 맨들러(Mandler)의 감정의 인지 이론

맨들러는 감정적 반응이 자율신경 시스템의 생물학적 환기에 의해 따라 나온다는 입장에서 생물학적 적용 가치를 고려한 종합적인 견해를 발달시켰다. 그에 의하면 환기는 기대의 지연 또는 지각적-운동 셰마에 근거한 기대 패턴들에 의해 일으켜지는데 이러한 셰마는 앞서올 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인간 인지의 자동 연상 방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인간 인지는 예견과 감각의 확인 간의 지속적인 내면 활동인 것이다.

10) 임미경·장기범·함희주,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서울: 벨로체, 2002), p.59.

다. 베를린(Berlyne)의 감정, 환기, 보상 이론

건강한 중추신경 시스템의 기능은 감각적 입력을 찾는데 있다는 그는 대상이 제공하는 미적 자극에 대한 가치 평가는 그 대상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쾌락적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의해 평가된다고 말한다.

쾌락적 가치란 음악적인 자극을 받을 때 내면에 형성되는 보상과 이것에 의해 평가되는 가치,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발되는 동기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피드백(feedback)은 개개인에게 고유한 쾌락적 가치를 제공한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가치는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과정에 내재된 자극 요소들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정서적 경험의 질을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행동 처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쾌락적인 가치 경험에 관계되는 영역과 음악적 자극에 의해 환기되는 정서가 동일한 영역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아 음악적 자극이 인간의 행동에 동기를 유발시키고 정서적 변화를 가져오며, 그래서 무드를 형성시킨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11)]

제 4 절 설문조사의 문항 분석 연구

1. 대상과 조사 방법

본 조사는 광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53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총 17개 문항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 방법으로는 자료 통계를 조사 인원에 대한 백분율로 환산하여 통계 처리하였음을 밝혀둔다.

2. 내용

학생들의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바탕으로 교과 성적 상위 30% 학생과 나머지 70% 학생들을 구분하여 교과학습과 정서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그 반응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

11) 최병철, 『음악치료학』(서울: 학지사, 2002), pp.81-83.

제 3 장 교과학습과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 1 절 음악교육과 교과학습

1. 음악교육의 시기와 교과 학습의 영향

<표-1> 음악교육 시기와 학습 영향

설문내용	반 응 도				
	구분 / 반응내용	상위 30%(160명)		나머지 70%(372명)	
		N	%	N	%
어느 시기의 음악교육이 교과학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① 유치원	39	24.38	23	6.18
	② 초등학교	76	47.50	116	31.18
	③ 중학교	35	21.88	167	44.89
	④ 고등학교	10	6.25	66	17.74

음악교육이 교과학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시기별로는 상위 30% 이내 학생의 24.38%가 유치원 시절이며, 47.50%가 초등학교 때라고 응답하였고 겨우 6.25%의 학생만이 고등학교 때라고 하였다. 나머지 70% 학생들 중에서는 31.18%가 초등학교 때이며 44.89%가 중학교 때 그리고 17.74%가 고등학교 때라고 응답하였다.

상위30% 이내 학생들이 비교적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절의 음악교육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 것은 지적 능력의 발달은 흡수력이 왕성한 시기에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결과가 지속적으로 학업 성적에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2. 음악 이론과 실기

<표-2> 이론과 실기 비중

설문내용	반 응 도				
	구분 / 반응내용	상위 30%(160명)		나머지 70%(372명)	
		N	%	N	%
현행 교육과정에서 이론과 실기의 비중은 적정합니까?	① 이론이 많다	66	41.25	234	62.90
	② 실기가 많다	24	15.00	82	22.04
	③ 적절하다	70	43.75	56	15.05

학교교육에서 음악의 지도는 이론과 실기의 적정한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상위30% 이내 학생들은 43.75%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나머지 70% 학생들은 15.05%만 적절하다고 했다.

또 이론과 실기의 비중을 볼 때 상위30% 이내 학생들의 41.25%, 나머지 70% 학생들의 62.90%가 실기보다도 이론에 더 치우쳐 있다고 하였다.

음악적 경험의 시작은 노래를 부르고 배우는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음악적 능력이 향상된다. 가창활동은 음악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다.

가창활동은 자신의 목소리를 악기로 사용하여 처음으로 음악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이며 가장 쉽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노래로 표현하며 미적 체험을 하고 음악적 개념을 형성하여 자신의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음악 활동이다.

그리고 기악활동은 악기를 연주해야 한다는 어려움 때문에 가창과 더불어 음악 수업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악기연주는 풍부한 음악적 표현력에 대한 학생의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활동일 뿐만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활동, 가락이나 화성에 대한 개념을 습득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결국 연주를 통해 음악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3. 정규교육과 사교육

<표-3>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시간 배당표[12)]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 / 구분		1	2	3	4	5	6	7	8	9	10
교과	국어	국어 210	238	238	204	204	204	170	136	136	136(8)
	도덕			34	34	34	34	68	68	34	34(2)
	사회	수학 120	136	102	102	102	102	102	102	136	170(10) (국사 68(4))
	수학			136	136	136	136	136	136	102	136(8)
	과학	바른 생활 60	68	102	102	102	102	102	136	136	102(6)
	실과	슬기로운 생활 90	102	·	·	68	68	기술·가정 68	102	102	102(6)
	체육			102	102	102	102	102	102	68	68(4)
	음악	즐거운 생활 180	204	*68*	*68*	*68*	*68*	*68*	*34*	*34*	*34(2)*
	미술			68	68	68	68	34	34	68	34(2)
	외국어 (영어)	우리들은 1학년 80	·	34	34	68	68	102	102	136	136(8)
재량 활동		60	68	68	68	68	68	136	136	136	204(12)
특별 활동		30	34	34	68	68	68	68	68	68	68(4)
연간 수업 시간 수		830	850	986	986	1,088	1,088	1,156	1,156	1,156	1,224 (72)

<표-4> 음악교육의 기회

설문내용	반응도				
	구분 / 반응내용	상위 30%(160명)		나머지 70%(372명)	
		N	%	N	%
현행 교육과정에서 음악교육의 기회는 충분합니까?	① 아주 충분하다	22	13.75	14	3.76
	② 충분하다	45	28.13	101	27.15
	③ 부족하다	69	43.13	167	44.89
	④ 많이 부족하다	24	15.00	90	24.19

12) "교육인적자원부, *op. cit.*, p.23."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68시간,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34시간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상위30% 이내 학생의 41.88%, 나머지 70% 학생의 30.97%가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많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도 상위30% 이내 15.00%, 나머지 70% 학생 가운데 24.19%가 학교교육에서의 음악교육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한 점으로 볼 때 우리의 일상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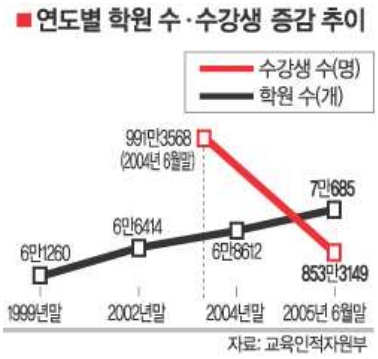
<표-5> 사교육 기관의 음악교육

설문내용	반 응 도				
	구분 / 반응내용	상위 30%(160명)		나머지70%(372명)	
		N	%	N	%
학교교육이 아닌 사교육 기관에서 음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76	47.5	146	39.25
	② 없다	84	52.5	225	60.75

한국교육개발원의 '사교육시간, 개인공부시간, 학교수업참여도의 실태 및 주관적 학업성적 향상효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또 이들은 일주일 평균 11.23시간을 사교육에 할당하고 있었다.

학원 수에 있어서도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1999년 말 61,260개였던 학원 수는 2004년 말 68,612개, 2005년 6월 말 70,685개로 매년 늘고 있다.

그러나 학원 난립으로 학원 교육의 질 저하 등 부작용 또한 작지 않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표-6> 연도별 학원수·수강생 증감 추이

이처럼 일반 학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음악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상위30% 이내 학생이 47.5%, 나머지 70% 학생이 39.25%만이 음악학원을 다닌 것은 사교육

시장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조차도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표-7> 사교육 기관 수강 기간

설문내용	반 응 도				
	구분 / 반응내용	상위30% 중 47.5%(76명)		나머지 70%중 39.25%(146명)	
		N	%	N	%
사교육 기관에서 음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받았습니까?	① 6개월 미만	7	9.21	38	26.03
	② 1년 미만	14	18.42	58	39.73
	③ 2년 미만	27	35.53	35	23.97
	④ 3년 이상	28	36.84	15	10.27

사교육 기관에서 음악교육을 받은 경험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 중 1년 이상 음악교육을 받은 학생이 상위30%에서는 72.37%이고, 나머지 70%에서는 34.24%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또, 6개월~1년 미만은 상위30% 학생의 27.63%, 나머지 70% 학생의 65.76%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학생들이 비교적 끈기를 가지고 공부하는 습관을 기른 결과 학업 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표-8> 사교육 기관에서 배운 악기

설문내용	반 응 도				
	구분 / 반응내용	상위30% 중 7.5%(76명)		나머지 70%중 39.25%(146명)	
		N	%	N	%
사교육 기관에서 어떤 악기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① 피아노	51	67.11	98	67.12
	② 국악기	2	2.63	7	4.79
	③ 현악기	14	18.42	23	15.75
	④ 관악기	6	7.89	12	8.22
	⑤ 기타	3	3.95	6	4.11

사교육 기관에서 음악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위30% 학생

가운데 피아노를 배운 학생이 67.11%이며, 나머지 70% 학생 가운데는 67.12%의 학생이 피아노를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 가운데 국악기를 배운 학생은 상위30%에서 2.63%, 나머지 70%에서 4.79%만이 국악기를 배웠다.

여러 가지 악기 가운데 사교육 기관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고 배우는 악기는 음악에서 가장 기본적인 악기라 할 수 있는 피아노임을 알 수 있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음악 교육이 공교육에서뿐만 아니라 사교육에서도 서양 악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9> 학교교육과 사교육의 교과학습 발달 영향

설문내용	반 응 도				
	구분 / 반응내용	상위 30%(160명)		나머지 70%(372명)	
		N	%	N	%
학교교육과 사교육 중 어느 쪽이 교과학습 발달에 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① 학교교육	108	67.50	146	39.25
	② 사교육	52	32.50	226	60.75

음악교육이 교과학습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는 상위 30% 학생은 학교 교육이 67.50%로 더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70% 학생은 사교육이 60.75%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상위 30%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 수업에 임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

4. 음악교육과 교과 성취도

<표-10> 음악교육과 교과 성취도 관계

설문내용	반 응 도				
	구분 / 반응내용	상위 30%(160명)		나머지70%(372명)	
		N	%	N	%
음악교육이 자신의 교과 성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① 아주 많이 미쳤다	33	20.63	12	3.23
	② 조금 미쳤다	71	44.38	87	23.39
	③ 거의 미치지 않았다.	48	30.00	169	45.43
	④ 전혀 미치지 않았다.	8	5.00	104	27.96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지금까지의 음악교육이 자신의 교과 성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미쳤다”가 상위 30% 학생은 20.63% 나머지 70% 학생은 3.23%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혀 미치지 않았다.”는 상위 30% 학생은 5.0%에 불과했으나, 나머지 70% 학생은 27.96%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때 아이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비롯해 음악, 미술, 실과, 체육, 도덕, 컴퓨터 등 많은 과목을 배운다. 상위권에 드는 아이들은 이 많은 과목들을 대부분 잘 소화해 낸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언어능력이 뛰어나서 국어는 잘하지만 계산력이나 논리력이 부족해 수학이 뒤떨어지거나, 암기를 싫어해 사회나 과학 같은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는 어떤 것을 시켜도 금방 잘해서 공부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사람의 몸은 각 기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감각은 다른 감각으로 쉽게 전이된다. 그래서 감각이 있는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치고, 그림도 잘 그리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는 경우가 많다.[13]

상위 학생일수록 교과 간 상호 작용에 의하여 영향을 미친 결과 다른 교과 학습에까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11> 음악교육과 과목별 영향

설문내용	반 응 도				
	구분 / 반응내용	상위 30%(160명)		나머지70%(372명)	
		N	%	N	%
음악교육이 교과학습에 영향을 미쳤다면 어느 교과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① 국어	12	7.50	43	11.56
	② 영어	4	2.50	8	2.15
	③ 수학	50	31.25	84	22.58
	④ 사회	0	0.00	12	3.23
	⑤ 과학	28	17.50	20	5.38
	⑥ 기타	58	36.25	101	27.15

13) 김강일·김명옥, 『예능에 강한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서울: 예담, 2005), p.17.

그 동안의 음악교육이 교과학습에 영향을 미쳤다면 어느 교과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상위 30%의 학생은 31.25%, 나머지 70%의 학생은 22.58%로 두 집단 모두 수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다.

음악과 수학의 밀접한 관련성은 음악으로부터 수학적인 관계를 처음으로 밝혀낸 고대 그리스 시대의 수학자 피타고라스(Pythagoras, BC582~BC496)이다. 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연구하여 그 성질을 알아낸 바 있는 피타고라스는 '만물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는데,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분야의 하나가 곧 음악이었다. 피타고라스는 하프를 직접 연주하면서 소리를 분석해 본 결과, 하프에서 나오는 소리가 가장 듣기 좋게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 하프 현의 길이나 현에 미치는 힘이 간단한 정수비례 관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학생들의 응답을 상당부분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표-12> 교과 선호도

설문내용	반 응 도				
	구분 / 반응내용	상위 30%(160명)		나머지 70%(372명)	
		N	%	N	%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교과는 무엇입니까?	① 국어	8	5.00	50	13.44
	② 영어	42	26.25	38	10.22
	③ 수학	40	25.00	41	11.02
	④ 사회	14	8.75	50	13.44
	⑤ 과학	16	10.00	40	10.75
	⑥ 음악	8	5.00	40	10.75
	⑦ 미술	6	3.75	45	12.10
	⑧ 기타	26	16.25	68	18.28

교과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에 있어서는 상위 30%에서는 영어를 26.25%, 수학을 25.00%가 좋아하고, 나머지 70% 학생들은 영어 10.22%, 수학 11.02%로 나타났다. 그 외 교과에 대해서는 비슷한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흔히 어렵다고 하는 영어와 수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제 2 절 음악교육과 정서발달

1. 발달과정과 음악교육

<표-13> 음악교육의 시기

설문내용	반 응 도				
	구분 / 반응내용	상위 30%(160명)		나머지 70%(372명)	
		N	%	N	%
음악교육은 어느 시기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유아 때	45	28.13	62	16.67
	② 유치원 때	45	28.13	89	23.92
	③ 초등학교 때	65	40.63	135	36.29
	④ 중학교 때	5	3.13	86	23.12

정서발달 측면에서 음악교육의 시기에 대해서는 상위 30%에서는 유아 때 28.13%, 유치원 때 28.13%, 초등학교 때 40.63%, 중학교 때 3.13%였고, 나머지 70%에서는 유아 때 16.67%, 유치원 때 23.92%, 초등학교 때 36.29%, 중학교 때 23.12%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유아 때의 음악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상위 30%에서는 중학교 때보다도 유아 때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음악 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조기 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어린이도 들을 수는 있으며 보고 듣는 것이 계속 뇌에 저장되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인간의 두뇌는 어릴수록 백지나 스폰지와 같아서 흡인력이 강하므로 다양한 악기의 소리와 다른 장르의 음악을 많이 들려주

면 저절로 힘들이지 않고도 음악교육이 된다. 실제로 어른이나 청소년들은 악보를 보면서 가르쳐야 하지만 글도 모르고 말씨도 아직 어눌한 유아들이더라도 들려만 주면 놀랍게도 잘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14> 음악교육의 시기와 성격 형성

설문내용	반 응 도				
	구분 / 반응내용	상위 30%(160명)		나머지 70%(372명)	
		N	%	N	%
어느 시기의 음악교육이 자신의 성격 형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① 유치원	24	15.00	62	16.67
	② 초등학교	88	55.00	102	27.42
	③ 중학교	42	26.25	145	38.98
	④ 고등학교	6	3.75	63	16.94

음악교육과 성격 형성의 영향은 상위 30%에서는 초등학교 55.00%, 중학교 26.25% 나머지 70%에서도 27.42%와 38.98%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성격(personality)이란 지성, 능력, 정서, 관념, 습관, 태도, 신체적 특징 등 많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대개 포괄적이며 또한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개념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성격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천천히 형성된 것이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개인의 행동을 규정하는 일반적 경향” 또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렸을 때의 음악적 경험은 의도적인 음악교육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음악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고 어느 때를 막론하고 음악을 들으면 즉석에서 따라 부르게 하거나, 또는 리듬에 맞춰 발을 움직이거나 해서 음악에 반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틀에 맞춘 음악교육이 아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음악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심리학자 피아제(J. Piaget, 1896～1980)의 인지적 발달단계 이론에도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2. 감정의 변화와 음악

<표-15> 음악과 감정변화

설문내용	반 응 도				
	구분 / 반응내용	상위 30%(160명)		나머지70%(372명)	
		N	%	N	%
음악이 감정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① 아주 많이 미친다	76	47.50	56	15.05
	② 조금 미친다	67	41.88	246	66.13
	③ 거의 미치지 않는다	12	7.50	48	12.90
	④ 미치지 않는다	5	3.13	22	5.91

음악과 감정변화의 관계에 있어서 상위 30%에서는 “아주 많이 미친다”가 47.50%, “조금 미친다”가 41.88%였으나 나머지 70%에서는 15.05%와 66.13%가 감정변화에 영향 받고 있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한다. 음악 교육은 기술이나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말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서툰 아이들도 피아노를 치면서 또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는 음악이 감정을 표출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음악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로 인해 행복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음악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키게 되면 아이의 흥미 여부와 관계없이 강요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위기에서 음악을 배우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겠다.

3. 기악 연주와 정서 순화

<표-16> 자신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

설문내용	반 응 도				
	구분 / 반응내용	상위 30%(160명)		나머지 70%(372명)	
		N	%	N	%
자신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는 몇 가지입니까?	① 없다	7	4.38	76	20.43
	② 1가지	32	20.00	130	34.95
	③ 2가지	76	47.50	99	26.61
	④ 3가지 이상	45	28.13	67	18.01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악기는 상위 30%에서나 나머지 70%에서나 대다수의 학생들이 1가지 이상씩은 다루고 있었다.

음악수업은 다양한 악기를 다룰 줄 아는 학생일수록 흥미와 자신감을 준다. 음악적 경험이 풍부한 학생들은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면서 관련 자료를 이해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단계의 음악을 감상하게 되고, 자신만의 악기를 통하여 음악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4. 음악과 정서의 상관관계

<표-17> 음악과 정서발달

설문내용	반 응 도				
	구분 / 반응내용	상위 30%(160명)		나머지70%(372명)	
		N	%	N	%
청소년기 음악교육이 정서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① 많이 도움이 되었다	52	32.50	65	17.47
	② 조금 도움이 되었다	89	55.63	132	35.48
	③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13	8.13	156	41.94
	④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6	3.75	19	5.11

청소년기 음악교육이 정서발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상위 30% 학생들은 “많이 도움이 된다” 32.50%, “조금 도움이 된다” 55.63%이고, 나머지 70%학생들은 “많이 도움이 된다” 17.47%, “조금 도움이 된다” 35.48%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학생도 각각 3.75%와 5.11%로 나타났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강박 관념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정서가 불안해지기 쉬우며 마음속에 내재된 감정을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교육을 통하여 음악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표-18> 정서발달에 도움을 준 음악

설문내용	반 응 도				
	구분 / 반응내용	상위 30%(160명)		나머지 70%(372명)	
		N	%	N	%
음악이 정서발달에 영향을 준다면 가장 유익한 음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클래식	86	53.75	198	53.23
	② 국악	2	1.25	8	2.15
	③ 가요	56	35.00	110	29.57
	④ 팝송	10	6.25	24	6.45
	⑤ 기타	6	3.75	32	8.60

다양한 음악 가운데 어떤 음악이 정서 발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상위 30%학생들은 클래식 53.75%, 가요 35.00%, 팝송 6.25%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70%학생들도 클래식과 가요가 각각 53.23%, 29.57%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악에 대한 반응은 상위 30%학생 1.25%, 나머지 70%학생 2.15%로 지나치리만큼 관심도가 낮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어렸을 때 교육받았던 악기와의 연관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것은 균형잡힌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표-19> 음악회 관람 경험

설문내용	반 응 도				
	구분 / 반응내용	상위 30%(160명)		나머지70%(372명)	
		N	%	N	%
음악회에 얼마나 자주 갑니까? (1년 기준)	① 자주간다(5회이상)	0	0.00	2	0.54
	② 가끔간다(3회～4회)	8	5.00	24	6.45
	③ 별로 안 간다(1～2회)	56	35.00	118	31.72
	④ 안 간다	96	60.00	228	61.29

음악회에 가 본 경험에서는 상위 30%학생이 “별로 안 간다” 35.00%, “안 간다” 60.00%, 나머지 70%학생들도 “별로 안 간다” 31.72%, “안 간다” 61.29%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별로 가지 않거나 안 간다고 응답하였다.

음악이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된다고 볼 때 한창 성숙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음악 감상의 기회를 자주 제공함으로써 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의 기초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제 4 장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에서는 음악교육이 학생들의 교과학습과 정서발달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이론적 검증을 해 보았고 거기에 따른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비교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음악교육의 영향력이 아주 컸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교육의 시기와 교과 학습의 영향면에서 볼 때 비교적 어린 시절의 음악교육이 교과 학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쳐 지적 능력 발달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과 운영과정에 있어서 음악 지도는 이론과 실기의 적정한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위 그룹의 학생들은 이론과 실기의 비율이 적절하다고 하고 있으나 나머지 학생들은 이론보다는 실기를 더 선호하였다. 이런 점에서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와 학교 현장에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학교교육에서 음악교육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한 것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음악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학생들이 비교적 끈기를 가지고 공부하는 습관을 기른 결과 학업 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상위 학생일수록 교과 간 상호 작용에 의해 다른 교과 학습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정서발달 측면에서는 인간의 발달 과정 상 조기 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격형성과 감정변화에 있어서는 하위그룹보다 상위 그룹에서 더 감정변화에 영향 받고 있다.

음악은 개인 감정상징화의 매체이자 그 시대의 문화, 사상, 가치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인간 사회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그 역할을 하여 왔다.

음악교육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 악기를 다룰 줄 아는 학생일수록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으며, 음악적 경험이 풍부한 학생들은 다양한 악기를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더 뛰어났다.

이러한 점에서 음악교육은 보다 어릴 때 시작함으로써 음악과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무엇보다 학교교육 현장에서 음악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교과학습과 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평가기준』. 서울: 세원문화사, 2001.

_____. 『'2007년 개정 교육과정'개요』. 서울: 세원문화사, 2007.

김강일・김명옥. 『예능에 강한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 서울: 예담, 2005.

민은기・김대호. 『한국 청소년의 음악교육 실태』. 서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서양음악연구소, 2000.

권덕원 외.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2006.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0.

_____.『음악교육의 방법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2.

임미경・장기범・함희주.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벨로체, 2002.

정옥분・정순화・임정하. 『정서발달과 정서지능』. 서울: 학지사, 2007.

최병철. 『음악치료학』. 서울: 학지사, 2002.

최시원. 『음악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다라, 1996.

권덕원 외.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2005.

2. 연속 간행물

김영채. "창의성 교육의 평가 방안" 『교육평론』. 서울: 주간교육신문사, 2005.

3. 학위 논문

김영임. "음악교육을 통한 감성학습이 청소년의 인성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중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2006.

김옥. "음악이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1998.

김혜경. "音樂敎育經驗 및 態度가 中學校音樂敎科成績에 미치는 影響."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2002.

박재성. “음악교육이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1.

최현옥. “음악교육이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2005.

함태상, “現行音樂敎育의 實態分析과 改善方案: 江原道內 中等學校를 中心으로.” 강원대학교, 1982.

부 록

< 설 문 지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여러분들의 성장과정에서 음악 교육이 교과 학습과 정서발달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일체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번거롭더라도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작성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 10.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이수의 드림

※ 다음 물음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곳에 V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어느 시기의 음악교육이 교과학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_____ ① 유치원 _____ ② 초등학교

_____ ③중학교 _____ ④ 고등학교

2 현행 교육과정에서 이론과 실기의 비중은 적정합니까?

_____ ① 이론이 많다 _____ ② 실기가 많다 _____ ③ 적절하다

3. 현행 교육과정에서 음악교육의 기회는 충분합니까?

_____ ① 아주 충분하다 _____ ② 충분하다

_____ ③ 부족하다 _____ ④ 많이 부족하다

4. 학교교육이 아닌 사교육 기관에서 음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_____ ① 있다 _____ ② 없다

5. 사교육 기관에서 음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받았습니까?

_____ ① 6개월 미만 _____ ② 1년 미만

_____ ③ 2년 미만 _____ ④ 3년 이상

6. 사교육 기관에서 어떤 악기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_____ ① 피아노 _____ ② 국악기

_____ ③ 현악기 _____ ④ 관악기

_____ ⑤ 기타

7. 학교교육과 사교육 중 어느 쪽이 교과학습 발달에 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_____ ① 학교교육 _____ ② 사교육

8. 음악교육이 자신의 교과 성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_____ ① 아주 많이 미쳤다. _____ ② 조금 미쳤다

_____ ③ 거의 미치지 않았다. _____ ④ 전혀 미치지 않았다.

9. 음악교육이 교과 학습에 영향을 미쳤다면 어느 교과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_____ ① 국어 _____ ② 영어

_____ ③ 수학 _____ ④ 사회

_____ ⑤ 과학 _____ ⑥ 기타

10.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교과는 무엇입니까?

_____ ① 국어 _____ ② 영어 _____ ③ 수학

_____ ④ 사회 _____ ⑤ 과학 _____ ⑥ 음악

_____ ⑦ 미술 _____ ⑧ 기타

11. 음악교육은 어느 시기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_____ ① 유치원 이전 _____ ② 유치원 때

_____ ③ 초등학교 때 _____ ④ 중학교 때

12. 어느 시기의 음악교육이 자신의 성격 형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_____ ① 유치원 _____ ② 초등학교

_____ ③중학교 _____ ④ 고등학교

13. 음악이 감정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_____ ① 아주 많이 미친다 _____ ② 조금 미친다.

_____ ③ 거의 미치지 않는다 _____ ④ 미치지 않는다

14. 자신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는 몇 가지입니까?

_____ ① 없다 _____ ② 1가지

_____ ③ 2가지 _____ ④ 3가지 이상

15. 성장과정에서 음악교육이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_____ ① 많이 도움이 되었다 _____ ② 조금 도움이 되었다

_____ ③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_____ ④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16. 음악이 정서발달에 영향을 준다면 가장 유익한 음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_____ ① 클래식 _____ ② 국악

_____ ③ 가요 _____ ④ 팝송

_____ ⑤ 기타

17. 음악회에 얼마나 자주 갑니까(1년 기준)?

_____ ① 자주간다(5회이상) _____ ② 가끔간다(3회～4회)

_____ ③ 별로안간다(1～2회) _____ ④ 안간다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음악교육	학 번	20058256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이수의 한문: 李 秀 義 영문: LEE SU UI				
주 소	광주 서구 화정3동 우미아파트 102-805				
연락처	011-640-1301 E-MAIL:				
논문제목	한글 : 음악교육이 교과학습과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문 :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Music Education on the Development of Aesthetic Sentiments and Academic Achievement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년 8월 일

저작자: 이수의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